



3면

“정책 방향에 공감”... 민주 김윤덕 의원  
‘대전 후보’ 이계명 공개 지지선언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5월 25일 화요일 (음 4월 14일) 제278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1인당 10만원 지급... 결혼이민자·영주권자·기준일 이전 출생자도 대상에 포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1800여억원 확정... 이르면 내달 말·7월 초부터 신속 지급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의 습성이 트이고,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도의회가 24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1,800여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전북도가 마련한 조례안은 지원 대상자를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나 세대로 제한했지만,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지급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출생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로써 결혼이민자 영주권자(7,450명)를 포함한 전북도민 180만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부대비용을 포함해 모두 1,812억원이다.  
모든 전북도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시·군과 협력해서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르면 6월 말 또는 7월 초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과 즉시 선불카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정했고 지역별 사용기간은 9월 말까지 3개월간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안에서 대형마트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도내 시·군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도는 6월 말부터 지급 예정이었으나 시·군에서 백신 예방접종 등 현안업무가 과중돼 76세 이상 노인층

의 예방접종이 마감되는 7월 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건의하고 있어 늦어도 7월초에는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시·군의 경우 이미 2020년 국가재난지원금 지급과 시·군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사전 안내, 신청 방법, 카드 교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민생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그간 여러 차례 선별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마련한 재난지원금은 단기간에 도민 모두의 고른 소비지출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편지원을 우선하고, 적극적인 소비활동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와 아리랑 국제방송은 24일 아리랑 국제방송 사옥에서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해외 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관광도시 전주, 아리랑TV 타고 해외로

시, 아리랑 국제방송과 해외 홍보 강화 협약 체결  
홍보 프로그램 공동 기획·미디어 연계 팸투어 추진  
국제영화제·비밀축제 등 주요 축제 홍보 힘 모아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관광 콘텐츠들이 아리랑TV를 타고 해외로 뻗어 나간다. <관련기사 4면>  
전주시와 아리랑 국제방송(사장 주동원 이하 아리랑TV)은 24일 아리랑 국제방송 사옥에서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해외 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방송사 아리랑TV를 통해 전주시의 한(韓)문화 콘텐츠를 세계 각국에 소개함으로써 썬 코로나19 이후 전주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전주를 홍보할 수 있는 해외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해외 미디어와의 연계를 통한 팸투어 추진에도 협력키로 했다.  
또한 전주국제영화제나 전주비밀축제, 전주문화제이행 등 전주시 주요 행사와 축제를 홍보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와 아리랑TV는 지난해 10월에도 한옥마을을 중심

으로 판소리와 부채춤 활쏘기 등 전통문화 체험 영상과 전주역 앞 첫마중길 영상 등을 제작해 해외 주요 TV광고나 중화권과 아세아 국가의 뉴스 매체에 송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가 종식되면 글로벌 관광도시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주가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이자 지속가능한 여행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매력적인 콘텐츠를 발굴하고 글로벌 홍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9년 개국해 전 세계 101개국, 약 1억4,000만 수신가구를 보유한 아리랑TV는 한국의 뉴스와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국제방송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올해 ‘드론 실증도시’에 진안군 선정

국비 11억원 확보... 호정솔루션 등 참여, 산림재난 관리 등 실증 추진

전북도는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 주관의 2021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진안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국내 드론 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고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드론의 실제 수요 창출과 조기 상용화가 가능한 아이템을 발굴, 드론 비행 테스트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4개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공모에 참여했으며, 진안군이 최종 10개 지자체에 선정돼 국비 11억원을 확보했다.  
진안군을 대표 사업자로 구성한 이번 실증사업 컨소시엄에는 호정솔루션, 리얼타임테크, 스마트, 티마텍, 비아, 우리아이오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했다.  
이번 선정으로 드론을 활용한 관광, 산림재난 관리, 축산시설 모니터링, 수자원 환경감시, 통합 모니터링 등 실

증 추진된다.  
진안군은 먼저, 진안군 내 주요 관광거점과 랜드마크를 드론으로 촬영해 비대면 관광 콘텐츠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안군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실증사업도 추진된다.  
산림면적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산림병해충이나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 발생 예상지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악취 센서를 탑재한 드론을 활용해 축산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할 예정이다.  
현재는 민원이 발생하면 지상의 고정형·이동형 측정기를 통한 수직업 모니터링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전북권 등 180만 호의 식수원인 용담호의 오염 유발 행위자에 대한 3기반 불법행위자 식별 및 드론 경고 방송을 통해 수자원 모니터링도 추진된다.

한편 이번 전국단위 공모 선정에는 전북도와 진안군의 협력이 빛을 발했다. 이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도는 도내 시군 수요조사 및 전문가 회의, 드론 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공모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시·군 의지와 실증 아이템 분석 등을 통해 진안군을 공모 참여자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도는 참여기업의 컨소시엄 구성과 실증 아이템 선정, 사업구역 조정 및 공모 신청 사업계획 작성까지 참여기업들과 지속 협력했다.  
특히, 진안군도 참여기업에 지원방안과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드론 민간기업협의체 운영 등을 제시하며, 군의 강한 의지를 보여 줬다는 후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드론 실증사업으로 도내 드론 기업 경쟁력 강화와 드론 산업육성에 큰 힘이 됐다”면서 “향후 드론 활용 서비스를 시·군과 협력 지속 발굴해 드론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착한 임대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선별진료소가설건축물 취득세 면제

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전북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의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감면하고 선별진료소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이 제381회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됨에 따른 감면 혜택이다.  
이번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받는 착한임대인은 시·군 의회 의결을 통해 시·군세인 임대인의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감면하고 선별진료소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취득세를 면제한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주, 정읍, 완주, 무주가 의회 의결을 완료했으며, 익산은 6월 중 시행을 목표로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상태이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 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건물과 선박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 건

물분 재산세에 한한해 고지하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취득세도 면제한다.  
선별진료소로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지방세법상 1년 이상 존치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므로 공익 수행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할 예정이다.  
유희숙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도세 감면을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이 도내 전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돼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작게나마 희망과 위트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정읍 대표음식 1  
**귀리떡갈비**  
특이No. 제 10-1940876 호

정읍 대표음식 2  
**쌍화차묵은지삼합**  
특이No. 제 10-1940620 호

### 맛의 즐거움 단풍미락

생명과 사랑의 도시 정읍!

그곳에서 맛과 멋 그리고 건강 가득한 음식을 만납니다.

정읍 단풍미락!

건강에 좋은 정읍 귀리를 더한 귀리 떡갈비, 쌍화차 향과 참 좋은 어울림 쌍화차묵은지삼합

서울에서 KTX로 1시간 20분  
단풍도시 정읍에서  
맛과 멋의 풍미를 즐기세요~

식이성유가 풍부한 정읍 귀리와 비타민 함량이 많고 노화예방에 좋은 한드과 한우로 만들어진 떡갈비입니다.  
궁중에서는 떡갈비를 '황백(黃白)'이라 하였으며 울어 공정약령(宮廷藥房) (궁궐에서 먹던 고기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도라지는 해독 작용을 하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이 있다. 도라지구이와 묵은지 그리고 쌍화차의 그윽한 향이 배반 수육까지 더해져 그 힘이 감탄할 자아낸다.